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친구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발행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8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말씀과 삶 (금요찬양집회)

1.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구별되는 것일까?
2. 바른 것과 향락함
3. 실질적인 체현
4. 오류에 대한 책각
5.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이다
6. 직 용서함과 생명을 주심
7. 아픔되고 귀한 소식
8.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9. 내 모습 이대로

10. 완전한 교체 (에베소서 1:3)

하나님께서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러나 성도들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가난 속에서 살고 있다. (엡 1:17-19 : 고전 2:9) 자신의 지식, 노력, 능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만이 홀로 성령님을 통하여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고전 2:10)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유입임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고전 2:12) 바뀌어진 삶을 체험하기까지는 변화된 삶을 체험할 수가 없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던 죄인 그 자체를 예수님께 드렸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 주셨다. 자녀로 삼으시고 부활하신 생명, 용서, 의로우심을 모두 주셨다. 이 진리가 지식이 아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할 때에 좀더 나아지는 삶이 아니라 바뀌어진 삶이 될 것이다. (고후 5:21)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여 주신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화평이다. (롬 5:1)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는 은총으로 바꾸셨다. (롬 1:18)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하나님과 완전히 화해되었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모든 신자들은 안전해졌다. (롬 5:9)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직 잃어버린 자만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죄책감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안타깝다. 바울은 심판의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없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쳤다. (롬 5:6, 8-9) 복음의 메시지는 누구에게나 같기 때문이다. (롬 8:1)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온전한 자가 되었다. (히 10:14) 그러므로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웃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한다. (요일 4:10, 18)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다고 생각하게 될 때에 슬퍼하고 낙심하며 우울증에 빠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발견하게 될 때에 모든 투쟁은 끝난다.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다. (요일 4:19) 우리의 행실에서 온전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하나님의 눈에 온전케 된 것이다. 우리

가 모든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믿음이 전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행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다고 말씀하신다. (골 2:9-10) 그러나 완전히 성숙하지는 못한다. 부활의 날까지 계속해서 성숙해 갈 것이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선한 일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신다. (빌 1:6, 3:20) 마귀가 거짓말로 우리를 미혹하거나 험박할 때에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쳐야 한다. 우리들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또 죄의 값에 대하여도 죽은 자며 하나님을 향하여는 산 자가 되었다. (롬 6:4) 복음은 참으로 사랑의 메시지요, 생명의 메시지다.

진리를 실천하는 삶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간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갈 2:20)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때에 우리의 육체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성령, 감정, 의지 등이 그대로 남아있다.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시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한다. (롬 12:2)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남은 때를 살아가는 동안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골라내어서는 안 된다. 자기의 죄를 아는 사람은 곧 자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 (고전 6:10-11)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왜 변화되어야 하는지 또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에 관하여 설명해 준다. (고전 6:15-17)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는 진리의 근원으로서의 하나님을 부인하는, 오히려 선과 악을 스스로 구별할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후로 우리는 선과 악 앞에서 늘 투쟁하도록 이 세상이 태어났다. 우리는 성경의 전이다. (고전 6:19-20)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므로 진리를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마귀의 음성을 따라간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고전 10:13)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이 주어졌으므로 회개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올 때에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 (마 16:24) 육신의 정욕으로 인한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루의 삶에서 오직 성경을 따라 행해야 한다. (갈 5:16)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아니요."라고 해야 하며, 동시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는 "예."라고 대답해야 한다. (벧전 2:24) 우리 모두에게 어떤 종류의 투쟁이 있든지 그 대답은 항상 같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난 완전한 교체를 깨달을 때에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체험할 수 있다. 아멘.

위임목사 위임목사님께서 8월 5일(화)부터 한 달여간 휴가를 가십니다.
동 정 은혜로운 모든 일정이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누리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금요찬양집회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바쁜 신앙생활 속에서 무언가 황당함을 느꼈던 심령이 은혜로 충만해졌음을 많은 성도님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자의 삶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매우 분명하고도 단순한 말씀은 모든 성도님들의 시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맞추게 하였습니다. 교회의 많은 일을 해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기에 십자가 아래에서의 잠깐의 쉼은 오히려 예수님의 깊은 영적 교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막 6:31)라고 쉼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안일과 게으름이 아닌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의 쉼의 은혜를 누리야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휴가 중이거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통한 은혜와 기쁨만이 우리 영혼에 참된 쉼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쉼 만한 풀 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 23:1-2) 휴가 계획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어야 합니다. 잠깐의 휴가일지라도 십자가에서 떠난 생각, 말,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 말씀을 나누거나 홀로 조용히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순간의 욕심 때문에 영원한 은혜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시리라" (갈 5:16)

FOLLOW ME AND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18) Now as Jesus was walking by the Sea of Galilee, He saw two brothers, Simon who was called Peter, and Andrew his brother, casting a net into the sea; for they were fishermen. (19) And He said to them, "Follow Me, and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20) Immediately they left their nets and followed Him.

(24) The news about Him spread throughout all Syria; and they brought to Him all who were ill, those suffering with various diseases and pains, demoniacs, epileptics, paralytics; and He healed them.

(25) Large crowds followed Him from Galilee and the Decapolis and Jerusalem and Judea and from beyond the Jordan. (Matthew 4:18-25)

When Jesus called Peter and his brother Andrew to be His disciples, they were casting a net into the sea because they were fishermen. He said to them, "Follow Me, and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v. 19) This was a really clear call to faith and what it would mean to follow Jesus. Following Jesus Christ means you fish for people. Many of today's Christians follow Jesus but do not fish for lost souls. They do not actively search or spend time sharing their faith with others. Fishing for peopl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alls of Christ. Today's churches neglect this important call. Even though they are the body of Christ, they do not put a lot of effort into fishing. Fishing is a very serious call that Jesus wants us to do. His call demands our attention. How can we become good fishers of people?

We can follow Christ in His contact with people. During His earthly ministry, Jesus loved people and made time for them. He preached to the rich and poor, the young and old, the sick and healthy. He was available for everyone! He loved the outcasts and the socially accepted. When you look at John 4, you see Jesus caring for the woman at the well with a thirsty heart. When you look at John 3, you see Jesus caring for Nicodemus, a Pharisee who was ruled by his fears. When you look at Luke 19, you see Jesus caring for Zaccheus, a tax collector who cheated people out of money. Jesus loved all the people He came into contact with. If you and I want to become fishers of people, then we must love all people, not just some. For if we lack love then we cannot reach the beautiful souls that Jesus died on a cross to save.

We can follow Christ in His compassion on the cross. After He was crucified, as He hung dying on the cross, Jesus prayed,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do not know what they are doing." (Lk. 23:34) He prayed for the people against Him. He had compassion for the cruel and cursing crowd. Even while He suffered in shame, He won a soul. One of the criminals hanging next to Him asked,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 Your kingdom." (Lk. 23:42) Jesus said to him, "Truly I say to you, today you shall be with Me in Paradise." (Lk. 23:43) Do you have that kind of compassion? Jesus loves the sinner, and His love

guarantees salvation by faith alone. His love is the heart of the gospel. Fishing for people demands love and compassion. Without these ingredients all witnessing efforts are worthless. 1 Corinthians 13:2-3 say, "If I have the gift of prophecy, and know all mysteries and all knowledge; and if I have all faith, so as to remove mountains, but do not have love, I am nothing. And if I give all my possessions to feed the poor, and if I surrender my body to be burned, but do not have love, it profits me nothing."

We can follow Christ by being fully committed to His mission. Jesus asks all His followers, "If anyone wishes to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t. 16:24) I know many, many Christians who want to follow their own will and way. They cannot follow Jesus. When you do your own thing, you do not have real love and you only contact those who you like. When you deny yourself and listen to Jesus, then when He directs you to go, you go and when he leads you to meet someone, you meet them. Jesus was fully committed to His Father's will, "For I have come down from heaven, not to do My own will, but the will of Him who sent Me." (Jn. 6:38) Our wills can be so strong. We want what we want and when things do not go the way that we want, we think God is unfair. We are so stupid! Jesus died for the sinner. This was not His will but His Father's will. He came to provide eternal life. Jesus Christ has commissioned His followers to carry out His mission. This is clear in His Great Commission to us, "All authority has been given to Me in heaven and on earth. Go therefore and make disciples of all the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teaching them to observe all that I commanded you; and lo, I am with you always, even to the end of the age." (Mt. 28:18-20) Jesus wants us to save people. He asks us to follow Him. Following Jesus means obeying His commission and becoming fishers of people.

My dear friend, have you been fishing for people lately? If not, then you have not been following Jesus. Please decide to follow Jesus and go fishing for people everyday. The world is full of dying souls in need of a living Savior. Let Jesus use you to bring them His wonderful saving grace. Amen. 🙏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¹⁸⁾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¹⁹⁾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²⁰⁾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

⁽²⁴⁾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²⁵⁾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 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마태복음 4:18~25)



김성관 목사

예수님께서는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어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러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19절) 이것은 정말로 분명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부르심이었으며 그것은 곧 예수님을 따르라는 뜻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지만 잃어버린 영혼을 낚는 어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지도 자신들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시간을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을 낚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은 이 중요한 부르심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낚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영혼을 낚는 일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낚는 좋은 어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르자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주셨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사역 기간 동안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위해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자나 가난한 자, 젊은이나 노인, 병자나 건강한 자 모두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만나주셨습니다! 그분은 버림받은 자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자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심령이 목말라 있는 한 여인을 만나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두라올에 펴고 있는 바리새인 니고두모를 만나주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사람들을 속여 재물을 모은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 주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랑을 낚는 어부가 되고 싶다면 단지 몇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 없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구원하고자 하셨던 그 귀한 영혼들에게 다가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비를 따르자

우리는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리스도의 자비를 따라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갈 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눅 23:34) 예수님은 자신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악독한 처주를 내뱉고 있는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수치심으로 고통 받는 순간에도 한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 옆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눅 23:42) 예수님은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눅 23:43) 지금 여러

분에게 이러한 자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영혼을 건지려면 사랑과 자비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복음을 증언하는 모든 수고가 헛됩니다. 고린도전서 13:2~3은 말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함으로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 16:24) 그런데도 아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의지와 방법대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자신의 길을 고집하는 사람은 진정한 사랑이 없고 단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만 만나려고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가라고 명하실 때 가고, 주님께서 만나야 할 사람을 이끌어주실 때 그들을 만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의 완전한 복종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요 6:38) 우리들의 의지는 너무나 강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고집하고, 우리의 뜻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에게서 불종명령에 반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 28:18~20)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사람들을 낚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날마다 사람들을 낚기 위해 나아가십시오. 이 세상은 죽어가는 영혼들로 가득 차 있고 그들에게는 살아계신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그들을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자리로 데리고 오는 일에 여러분이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

수요1부예배 메시지(2008. 7. 30.)

교회를 제워 가는 것 (에베소서 4:11~16)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교회에 관련된 지서와 경험 많은 실력자나 인격자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신다. 오직 보혈로 거듭나 주님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성도들만이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다.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엡 4:12)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고 봉사의 일을 하는 목적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데 있다. 따라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십자가만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처음과 끝이다. "그 안에 있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라"(골 2:9) 하나님은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거듭난 죄인들에게 소망을 주신다.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보혈로 모든 죄를 속량 받은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의 다른 점들을 벗어 놓아야 한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자신의 주장이 강해진다. 자신만의 가치를 세워놓고 주님의 일을 비롯한 모든 일을 거기에 맞추려고 한다. 이와 같은 자신의 가치, 주장, 실력, 경험을 버려야 한다.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우리는 구원, 영생과 상관없이 죄인들이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은총의 자녀가 되었다.(엡 2:12~13)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분히 이르는 데 있어야 한다.(엡 4:13) 그럼에도 우리는 매순간 자신이 누구인지 잊는다. 우리는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비천한 사람들이다. 우리 삶의 근거는 자신의 실력이 아닌 믿음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위해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과 전혀 관계가 없다.(골 2:8) 자신의 가치, 세상의 문화에 속지 말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 되어 전심으로 기도하자.(엡 1:14)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자.(행 2:1) 아무리 작을지라도 자신의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행 4:31~32) 주님의 교회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세워진다.

마가복음 강해 34

* 대주 황요새목회자(새벽 4:45)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천 명을 먹이시다 (6:30~44)

자라리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오병이어 기적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예수님이 행하신 역사이다.

오병이어와 비슷한 기적이 이미 구약시대에 있었다.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하였던 사르밧 과부의 밀과 기름은 가뭄이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았다.(왕상 17:12) 또한 보리떡 20 덩이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교육을 받은 선지자 생도 일백 명이 충분히 먹고도 음식이 남았다.(왕하 4:42~44) 이 기적이 일어났던 상황과 오병이어 기적의 상황이 상당히 비슷하다. 주변 사람들은 의심했지만 예수님은 기도하셨다.(요 6:9 ; 막 6:41) 그리고 기적은 일어났다.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한 남자들만 오천 명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남은 음식도 많았다.(막 6:42~44) 특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리들이 배 맥씩, 오십 명씩 떼를 지어 푸른 잔디에 앉은 모습은 마치 정병배 있는 십자가 정병을 연상시킨다. 또한 잔소와 격식은 갖추지 못했지만 딱딱한 바닥이 아닌 푸른 잔디에 앉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메시아적 왕기를 느끼게 된다.

말씀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한다. 세상의 가치는 그럴듯하다.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이기에 더욱 그렇다. 속지 말자.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이성과 과학에 근거한 그 무엇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없을 때 영적 성장은 멈춘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엡 4:14) 교회를 위한 검증된 프로그램보다 한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명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딤후 4:5~7)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고 속이는 영들이 교회 안팎에 많이 있다.(딤후 6:3~5) 더욱 주님의 말씀을 붙들자. 오직 말씀만이 모든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다.(딤후 3:16~17 ; 골 2:4) 말씀의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교훈적인 말씀들을 많이 만드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 모든 대답이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기준이다.(요일 4:3) 주님의 교회는 말씀의 기본으로 돌아간 성도들을 통해서 세워진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선포해야 한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선포해야 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니니 곧 그리스도라"(엡 4:15) 사랑의 최고봉은 십자가이다. 진리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따라서 주님의 교회는 교인들 간에 나누는 사랑의 교제가 중심이 돼서 안 된다. 십자가 사랑의 예수님이 중심이다.(고전 15:3~4) 주님의 교회는 십자가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주님의 교회이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 십자가의 은총으로 용서받아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열아마달로 기적 중의 기적이 아닌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롬 1:16~17) 주님의 교회는 십자가 사랑 안에서 복음을 전한다.

충현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또한 충현교회의 영광은 교인수, 건물, 탁발한 프로그램에 있지 않다. 오직 십자가의 영광뿐이다. 영원한 터가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질 것 같다. 이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나일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전심으로 회개하며 우리의 다른 점들을 벗어놓으라고 말씀하신다. 말씀의 기본으로 돌아가 십자가 사랑 안에서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자고 하신다. 이 얼마나 단순하고 쉬운가! 자기를 부린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주님이 요구하시는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자. "은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져나.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품과 늘 은혜 받도다."(찬 600장) 아멘.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길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어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막 6:34)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며 영생의 길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밝히셨다. "내가 천히 내 양의 목자가 되며....."(겔 34:15) "내가 내 목자들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겔 34:23) 그러나 목자의 도량이 절실한 양 같은 우리는 항상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 예수님의 관심과는 달리 우리는 세상에서의 부, 명예, 권력을 누리기만 원할 뿐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즉시 믿음으로 세우려한다.(막 6:15) 이렇게 한 이유는 사람들이 메시아로서 믿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단지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풍요를 위한 지극히 세속적인 발상이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영혼구원이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막 1:14~15) 세상을 향해 모든 관심을 쏟았던 악한 모습을 전심으로 회개하자. 자기를 부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믿음의 길을 걷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애쓰며 묵해하지 말자.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자. 이럴때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사탄과 영적 정경에서 승리할 수 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제자들 또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았다. 어린이의 순수한 믿음과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다. 기적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동행하기를 갈망하자. 자신이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현실이 아닌 생명의 약속인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자.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찬 440장) 아멘.

복음의 능력 주님의 역사

먼저 부족하고 죄인인 나를 주님의 복음 사역에 사용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린다. 특별히 이번 선교는 영적으로 더욱더 준비케 하심으로써 먼저 우리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게 하였고, 오직 십자가만 의지하고 십자가 복음만 증거하도록 하였다. 팀구성과 팀훈련 그리고 영성심사와 언어심사 등, 하나하나의 과정이 성령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으로 진행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현재의 건강상태로는 선교를 감당하기 어려운 팀원, 신앙생활 연수가 얼마 되지 않는 팀원 등으로 팀원의 구성에서부터 있었던 많은 어려움이 오히려 팀원들을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였다.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헌신하게 하였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였다. 팀원 중 3명이 처음 임하는 선교였고 나머지 팀원들도 선교를 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모두 믿음으로 선교를 준비했고, 담대함과 열정을 더하여 주셔서 진정한 기쁨과 말씀의 사역이 되게 해 주셨다. 이런 변화를 볼 때 이것이 정말 복음의 능력이고 주님의 역사임에 감사드리다.

선교지로 출발하기 전, 선교지에 비상사태가 선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우리는 오직 기도로 주님의 인도하심만 구하였다. 사역지에 도착 후 우리는 경찰의 제지로 시내로 들어갈 수 없었지만 주님은 오히려 더 좋은 환경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으며, 우리가 오직 복음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한 가정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자 할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나의 손을 놓으려 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정말로 영원히 천국을 소망하였다. 또 한 가정을 방문했을 때 영어를 약간 말할 아는 소녀가 있었다. 말씀을 전한 후 찬송가 511장 <예수 사랑하심을> 찬양할 때 소녀는 이미 그 찬양을 알고 있었다. 온 가족이 같이 찬양을 부를 때 하나 되어 성령의 은총이 넘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

숙소에서 1~2시간 거리에 있는 전도의 발길이 닿지 않은 마을들을 중심으로 축조사역으로 복음을 전했다. 너무나 순수한 영혼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으며 "아멘, 아멘."으로 복음을 열접하는 영혼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셨는지 깨달을 수 있었다. 주님께서서는 이곳을 급하게 원하고 계셨던 것이다. 특별히 주님께서 팀원들을 강권케 하여 주서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가 되도록 말씀과 기도로 준비케 하고, 팀원 각자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서로를 사랑하며 고통과 아픔을 나누는 예후만한 사역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희우(민주집사, 14교구 1지역팀)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19개 팀)

기 간	팀	팀 장
8월 4일(월)-8월 9일(토)	중동2부 2팀	임병준
8월 4일(월)-8월 9일(토)	고동부 3팀	박근호
8월 4일(월)-8월 9일(토)	고동부 4팀	박현순
8월 4일(월)-8월 9일(토)	중동1부 3팀	송영복
8월 4일(월)-8월 9일(토)	중동1부 4팀	강태현
8월 4일(월)-8월 13일(수)	임마누엘전도대 1팀	이태연
8월 5일(화)-8월 13일(수)	9교구 3지역	이정훈
8월 5일(화)-8월 13일(수)	4교구 1지역	박남준
8월 5일(화)-8월 13일(수)	20교구 7지역	박종율
8월 5일(화)-8월 13일(수)	22교구 3지역	김성수
8월 6일(수)-8월 14일(목)	2교구 1지역	최세진
8월 7일(목)-8월 14일(목)	2교구 7지역	허산진
8월 7일(목)-8월 15일(금)	15교구 7지역	유종석
8월 7일(목)-8월 15일(금)	23교구 2지역	유재훈
8월 7일(목)-8월 15일(금)	23교구 7지역	문경만
8월 8일(금)-8월 16일(토)	3교구 2지역	안준모
8월 8일(금)-8월 15일(금)	4교구 4지역	김윤환
8월 8일(금)-8월 15일(금)	6교구 5지역	최홍윤
8월 9일(토)-8월 16일(토)	17교구 2지역	김영록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25개 팀)

기 간	팀	팀 장
7월 28일(월)-8월 2일(토)	침니1부 3팀	함화기
7월 28일(월)-8월 5일(화)	충현북지관 1팀	최상기
7월 28일(월)-8월 5일(화)	10교구 7지역	정문호
7월 28일(월)-8월 6일(수)	13교구 4지역	김철남
7월 28일(월)-8월 5일(화)	14교구 3지역	성영한
7월 28일(월)-8월 5일(화)	17교구 1지역	이선홍
7월 28일(월)-8월 5일(화)	21교구 6지역	유형수
7월 28일(월)-8월 5일(화)	22교구 2지역	전준봉
7월 28일(월)-8월 4일(월)	24교구 8지역	이인원
7월 29일(화)-8월 5일(화)	3교구 3지역	김 광
7월 29일(화)-8월 6일(수)	10교구 4지역	강만수
7월 29일(화)-8월 5일(화)	20교구 2지역	김영민
7월 30일(수)-8월 6일(수)	10교구 6지역	김영진
7월 31일(목)-8월 7일(목)	5교구 9지역	김정현
7월 31일(목)-8월 8일(금)	6교구 6지역	박용기
7월 31일(목)-8월 8일(금)	7교구 1지역	이경환
7월 31일(목)-8월 8일(금)	8교구 4지역	김성현
7월 31일(목)-8월 8일(금)	18교구 6지역	박석선
8월 1일(금)-8월 8일(금)	7교구 4지역	최동상
8월 1일(금)-8월 8일(금)	8교구 3지역	윤병식
8월 1일(금)-8월 9일(토)	8교구 5지역	김동희
8월 1일(금)-8월 9일(토)	11교구 6지역	김봉화
8월 1일(금)-8월 8일(금)	16교구 4지역	최경하
8월 1일(금)-8월 9일(토)	17교구 5지역	남종호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청년1부



김종선(장로, 청년1부장)

간은 죄로 인하여 어두워진 세상을 살아가는 젊은 청년들이 생명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공부를 통해 스스로 깨닫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열접한 사람이나 청년부에 처음 나온 회원들은 신입부에서 4주간의 적응교육을 받은 후에 등반하여 함께 성경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별 성경공부는 주일설교말씀을 중심으로 주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과 자기부인의 실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십자가 복음 안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대한 각자의 진솔한 마음들을 나누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주부에 대한 사관들이 세상의 지식이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고 해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청년들이므로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며 주님을 따라가려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가정에서도 문화의 장벽으로 대화가 점점 줄고 있는 현실이지만 성경 속에서 스스로를 찾고, 세상 속에서 내가 있는 곳을 느끼며 성도의 생활이 무엇인지를 공동체 속에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회원들이 사회생활과 학업 또는 취업준비 등으로 여념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찾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행편과 처지가 달라도 모든 청년회원들이 하모니를 가지고 함께 모여 참여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자들로 하여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로 12:2) 충명의 귀한 청년들이 되어 세상 끝날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13개 팀)

기 간	팀	팀 장
7월 21일(월)-7월 29일(화)	1교구 2지역	윤선한
7월 21일(월)-7월 29일(화)	2교구 4지역	홍순길
7월 21일(월)-7월 29일(화)	10교구 2지역	정철석
7월 21일(월)-7월 30일(수)	18교구 3지역	윤해곤
7월 21일(월)-7월 29일(화)	21교구 4지역	박명근
7월 22일(화)-7월 29일(화)	4교구 5지역	박봉선
7월 22일(화)-7월 29일(화)	6교구 1지역	박광식
7월 22일(화)-7월 29일(화)	12교구 2지역	김명성
7월 22일(화)-7월 29일(화)	20교구 4지역	강석화
7월 23일(수)-7월 30일(수)	9교구 6지역	조영구
7월 23일(수)-7월 30일(수)	10교구 5지역	김종성
7월 23일(수)-7월 30일(수)	15교구 2지역	이병근
7월 26일(토)-8월 2일(토)	22교구 3지역	김종녀

근접한 한 영혼을 향한 관심

금요찬양집회의 말씀 중 '바른 것과 황당함'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주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았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삶은 너무 바빴다. 주 의 일을 하고 주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일 때문에 바빔기에 바른 이유가 합당하게 보였지만 실상은 지치고 분주한 속에서 주님과 그의 고요한 교제가 끊어졌지 오래였다. '이 일을 통해, 이 배움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 싶어요.'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지만, 결국 위임목사님의 말씀대로 '오류와 착각'이었음을 주님은 깨닫게 하셨다.

지난 2001년, 루푸스신염을 판정받고 계속 통원치료 중 최대의 위기가 찾아왔다. 곧 입원해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할 때 주님은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을 주셨다. 너무 바쁜 스케줄로 거지 생각들이 들어오고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어질 때, 그때 주님은 깨닫게 하셨다. 진실로 겸손하게 주님께서 무엇인지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라고..... 그동안 약함을 통해 얻으로 사는 생명이란 마음으로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였고 기쁘게 주의 일을 하였지만, 어느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앞서 행하는 나의 열심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자랑하는 삶으로 변질되고 있었다. "주님께만 집중하겠어요."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4월 동안 힘든 마음을 마치고 퇴원한 날 마치 거친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을 보면서 내 마음의 황당함을 느꼈다. 그리고 옆에서 간병하시는 어머니를 생각했다. 몇 년 전 귀에 생긴 열중수술 후 청력을 거의 잃으신 어머니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다. 어머니의 영혼을 보도록 주님은 나의 눈을 여셨던 것이다. 주님은 근접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해 주셨다. 주님의 관심은 한 영혼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깨닫게 하셨다. "주님, 너무나 바빠서 주님의 최고 관심인 한 영혼에 관심을 두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가까이 있었는데, 주님!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오늘날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게 해 주세요."

김현아(집사, 1교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은혜의 기쁨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가사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며 영원히 찬송할 노래의 제목이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 끊임없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다. 거듭남에 대해서 속으로만 고민하며, '거듭난 증거'를 대단한 성령의 은사가 나에게 있어야 하는 건 아닐까? 라고 문득문득 들었던 의심을 금요찬양집회 말씀을 통해서 제거해 주신 주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거듭남의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어서 내가 무슨 노력을 한다고 거듭나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고, 내 공포 하나 없이 십자가의 은사로 거듭났기 때문에 믿음의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으므로 더 이상 의심의 안개 속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거듭남의 근거가 나로부터였다면 완전히 못하므로 계속 불안 가운데 살아가겠지만 거듭남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므로 그 은혜에 감사할 것만 내게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늘 고민해 왔던 나는 어떠한 신앙 서적으로도 시원한 해답을 얻지 못했다. 무언가 나의 노력과 행위를 강조하는 것 같았고, 그런 것들은 나를 더욱더 얽매이게 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게 했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왜 산 자와 같지 않지? 천국이 왜 이렇게 막연하게만 느껴질까?' 라고 종종 의문이 들었고, 결국 이러한 의문들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은 아닐까?' 라는 불신앙으로 이어지곤 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실재가 되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런데 요즈음 금요찬양집회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깨어지는 나를 본다. 말씀을

주어 불쌍히 여기소서

삶의 현장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감사하는 표현들을 종종 듣는다. 그런데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실제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감사하는지? 영원한 죽음으로 나를 몰아갈 죄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해결하여 주셨다. 그럼에도 여전히 자유하지 못하고 옛 사람으로 죄에 매여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본다. 아직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알드리면서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한다. 때로는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넘치지만 눈에 보이는 세상이 더 확실하고 크게 느껴진다. 내 속에 아직도 율법적인 정죄함이 나를 묶어매고 있었다. 은혜의 법보다 율법의 법이 더 죄인임을 느끼게 한다.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마음이 앞서고 탐내지 말라는데도 불혹불측 탐심이 일어나며 써먹질 것을 구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써먹질 것을 간구하는 내 자신을 볼 때 그것을 또 정죄하며 "주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이니이다."를 반복하며 죄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것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 8:32)고 하셨는데 진리를 알고는 있지만 믿음이 작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매번 기도한다. "주어, 믿음이 적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정말로 내 자신은 하나님과 화평하고 싶다. 온전히 주님을 인정하며 나를 죽이고 싶다. 그래서 나는 말씀을 더욱 붙들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주님의 말씀과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한다. "주님을 믿는 큰 믿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주어, 다스림 회개하오니 믿음이 적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최난희(집사, 9교구)

통해서 한 주 한 주 목마름이 해결되고 내가 바라보아 할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며, 해답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깨닫는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심으로 대했는지도 회개하였다. 영생의 선물이 내게 주어졌음에도 지금 담장 너에게 무언가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욕심 때문에 살아도 산 자와 같지 않았던 것이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데 어떻게 산 자와 같이 살아갈 수 있겠는가!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아갈 때는 절대로 산 자와 같이 살 수 없다. 세상 것도 갖고, 천국도 소유 하려는 이기적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고 깨뜨려 주시니 참 감사하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복음이 흐려지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것이다. 예수님 없이 해왔던 수많은 교회활동들은 나를 환락하고 지치게 만들었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는 일들은 정말 기쁨만 일다는 것을 깨달았다.

99%의 믿음은 100% 불신앙이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문제를 100% 친히 해결 하셨으므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따를 때만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이전에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확신 가운데 살지 못할까 생각했던 것들은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 얽히려 걸치고 있어서 그랬던 것임을 깨닫게 되니 너무나 부끄러웠지만 또한 너무나 감사했다. 앞으로는 어느 정도만 예수님을 믿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거룩한 주의 자녀인 척하는 외식을 벗고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걷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한다.

신형원(집사, 10교구)

새가족양육부 7월 수료자(1)

삶의 나침반이신 예수님



♥ 결혼 직후 장모님과 인도로 다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몸소 피 흘리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이제 저의 생활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늘 기도하는 삶으로 변했습니다. (유재권)

♥ 엄마의 기도와 인도로 신앙과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법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보yles 깨끗이 씻어주시고 나의 죄 사함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교회생활을 하면서 일주일마다 다시 나를 돌아보게 되었고 그전에 지은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커졌고, 내 삶에 의지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 너무 감사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황정호)

♥ 중환교회에 다니고 있는 아내는 통에 오게 되었습니다. 참 좋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잘 평안을 주셨습니다. 교회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며 친교 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이제 저의 삶도 신약적인 삶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화)

♥ 친구와 함께 와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요, 은혜의 주님이시며 감사의 주님이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에게 살 수 있는 은사를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항상 감사합니다. 양육받았던 지난 6개월은 정말 소중한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은혜로 울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깨닫기가 어려웠는지?' 지난 날 신앙생활을 돌이켜 보면서 지금은 하루하루가 정말 가슴이 벅칩니다. (사정은)

♥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을 아픔을 견디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이 나를 최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그분의 사랑 안에 다시 살게 해주셨습니다. 나의 고통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배를 통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통해 일주일 살아가실 수 있는 믿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세상적인 것이 좋았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좋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신성희)

♥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의 관리조장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중환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중환교회와 깨끗이 같이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일들도 영이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은혜를 더 깊게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 새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주인구)

♥ 이단에서 교육을 받던 중 의심하는 점이 있었고 중환교회에 다니는 친구에게 상담을 통해 권유받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최 없으신 예수님은 최인인 저를 대신하여 희생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지나간 죄와 앞으로의 나의 죄를 모두 대신해서 감아주시 것을 의미합니다. 임든 하루하루 생활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어서 함께 이야기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있어 기대가 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게 하는 것이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조준영)

♥ 우리 주님 예수님은 어둠 속에 있던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지었던 불교신자에게 참 신앙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주일날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좀 더 겸손해졌고 순종하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교회는 나오는 것이 즐겁고 나의 삶에 있어서 낙관할 값있는 예수님이 계시어 세상 사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최성복)

♥ 예수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이해해주는 분이십니다. 늦게라도 저를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 제 주변생활이나 사람들을 이용하셨고 제가 믿음생활에서 의문과 의심으로 갈등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있어 십자가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제 자신의 죄에 대해 인식이 못하고 편리대로 말리화하면서 살아왔던 지난날에 대한 참회와 성경이나 내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중심이 된 상정입니다. (염유록)

♥ 주 안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교회생활을 통해 가장 좋은 것은 아이들이 찬송을 즐겨 부른다 것입니다. 이제 주일을 온전히 지키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최주연)

♥ 집사들의 권유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몸소 피 흘리시어 희생하셨습니다. 교회생활을 하면서 아기가 노래를 많이 부르며 되면서 아이의 달란트를 발견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주일을 온전히 지키며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서동기)

♥ 중환교 때 이미 전도를 받았지만 2,000원 초반부터는 등록하지 않고 중환교회에 나오다가 동생에게 이끌려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나를 기다려 주시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어리려 가운데 무슨 일이 있든지 무엇이든 다 아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할 때나 찬송할 때 말씀을 볼 때에 말씀이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고 온과 영과 관습과 골수를 꿰뚫어 보아까지 하며 나의 생각과 뜻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드러내지 않게 펼쳐지는 주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 편하게 생활 속에서 많은 변화를 주고, 세포를 파괴물로 만드신다고 평안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진정으로 따라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최원경)

(다음 호에 계속)

소망부 수련회를 마치고

소생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

소망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셔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저녁부터 화요일까지 비가 많이 온다는 일기예보에 기도제목을 바꾸어 날씨에 대해 기도했습니다. 수련회 당일 아침에 조금 오던 비가 먹구름으로 바뀌더니 정말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수련회는 찬송으로 시작되었고,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인 '그리스도의 교회에 부흥을 주소서' (합 3:2)라는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면 알지 못할 찬미한 은혜 가운데 그동안 침체되었던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 회개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소생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 민족을 위해 마지막 때에 기도했던 것 같이 나도 복음이 전과 되는 이때에 우리 교회의 부흥과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로써 주시고, 성령충만을 주님 주신 사랑을 잘 감당케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후 침침을 맛있게 먹고 어느 집사님의 은혜로운 강단의 시간을 보았습니다.

이러 특강시간에 아름다운 산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산 소망'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천국을 향한 소망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고 회개하는 성도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는 오직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눅 18:16-17)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은혜 받으며 나이를 초월하여 그리스도 십자가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천국시민권자들이여 거기 있습니다. (골 3:20) 이제 저의 소망은 천국입니다. 이번 소망부 수련회를 통해 풍성한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순화(권사, 소망부)

♥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573	이두희	22	청년2부	
1574	유정목	4	청년1부	
1575	하인터	26	외선부	최정현(16)
1576	윤인태	7	대학부	목미자(6)
1577	박용오	1	청년2부	박경희(1)
1578	한도자	6	장년1부	전재숙(14)
1579	신 원	25	사랑부	김경애(20)
1580	박성민	11	청년1부	강진수(11)
1581	김성현	13	청년2부	
1582	강성익	19	중등1부	강 욱(1)
1583	전수희	10	중등3부	이혜련(11)
1585	김정희	19	청년1부	홍성미(10)
1586	김병기	11	청년2부	최화정(17)

* 중환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